

불자 세상보기



고영섭 동국대 불교대학교수

동양의 고전(대학) 제1장에서는 '대학의 길(大學之道)은 밝은 덕을 밝히는데 있으며(在明明德), 백성을 친하게 하는데 있으며(在親民), 지극한 선에 이르게 하는 데에 있다(在至於至善)'고 하였다.

여기서 '밝은 덕을 밝힘'은 진리의 탐구와 연마를 의미하고, '친하게 함'은 깨달음의 사회화를 뜻하며, '지극한 선에 이르게 함'이란 보살의 이타행을 일컫는다. '작은 배움(小學)이 아닌 '큰 배움(大學)은 이처럼 큰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의 대학은 어떠한가? 너무나 작은 가치와 의미에만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가?

동국대 전신인 명진학교는 불교대학의 모체가 되는 불교학파로 출발(1906)하였다. 동국대 불교대학은 구한말 불교계 선

각자들과 불자들의 후원에 의해 세워졌다.

이와 달리 하버드대 신학대학은 메사추세츠 주립대학으로 출발(1636)했지만 존 하버드 목사가 자신의 재산 반액과 전 서적을 기증함으로써 학교이름을 하버드대학으로 바꾸고 신학대학을 정체성으로 삼았다. 두 대학 모두 종교대학으로서 정체성을 삼고 있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하버드대 신학대학은 독립 건물과 도서관 및 세계종교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신학뿐만 아니라 불교학과 힌두교 및 이슬람학 강좌 등을 개설하여 강의해 오고 있다.

반면 동국대 불교대학은 독립 건물도 부재하며 불교학자로서의 세계불교학 연구소와 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 및 생사문화산업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불교학뿐만 아니라 인도철학과 선학 및 불교사회복지학 강좌도 개설해 강의해 오고 있다. 두 대학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견지하면서도 타종교를 수용 혹은 수렴하려 한다는 점에서 개방적인 학풍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하버드대가 자신의

정체성인 기독교라는 종교를 넘어서려는 유연한 학풍이 있는 반면 동국대는 불교라는 종교를 넘어서려는 유연한 학풍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하버드대 신학대학이 로마교황청이나 세계기독교연맹과 무관하게 운영되는 반면 동국대 불교대학은 대한불교조계종과 유관하게 운영되기 때문이다.

불교가 지혜와 자비의 정신에 기반하여 연기와 중도의 철학을 제시한다면, 기독교는 사랑과 박애의 정신에 기초하여 사랑과 믿음의 신학을 제시한다. 불교학이 역사와 철학을 학문의 중심축으로 설정한다면, 기독교는 종교와 신학을 학문의 중심축으로 시설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역사 철학 지향과 기독교의 종교 신학 지향은 두 종교의 학문적 방향과 맞물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드대 신학대학의 학풍은 종교학을 추구하기보다는 철학을 지향하는 반면 동국대 불교대학의 학풍은 철학을 지향하기보다는 종교학을 탐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시선들은 학문과 종교의 객관적 거리 확보와 균형 감각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

로 짐작된다.

학문탐구를 지향하는 대학이 객관성과 사실성의 탐구에 앞서 믿음의 선행을 강조한다면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신학의 성소'가 될 수밖에 없다. 불교와 기독교는 모두 아시아에서 태어난 종교들이다. 한국의 동국대 불교대학과 미국의 하버드대 신학대학은 불교와 기독교 두 종교의 정수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대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시각 위에서 두 대학(college) 사이의 상호 긴밀한 교류와 대화가 요청되고 기대되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은 하버드 신학대학이 추구하는 성직자와 재가자 사이의 균형의 학풍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하버드 신학대학은 동국대 불교대학이 추구하는 유교와 도교 및 힌두교와의 대화의 학풍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서를 대표하는 두 대학의 상호 교류와 상호 대화를 통해 대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근원적인 인식의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이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립대학 학풍 변화하려면

발언대

오바마·시진핑에게 제안한다



변순문 한반도평화통일 불교실천기획단장

고대 인도대륙을 통일했던 아쇼카 왕(Ashoka, 기원전 273~232년)이 칼링가(Kalinga) 전투 후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할 건까, 이것이 승리라면, 패배는 무엇인가? 승리인가, 패배인가? 정의인가, 불의인가? 이것이 용맹함이라면, 무고한 아녀자와 아이들을 죽이는 것도 용맹이란 말인가? 내가 한 일은 제국을 번성시키는 일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들의 번영을 빼앗고 파괴하기 위한 일인가? 누군가는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었다. 또 누군가는 자식을 잃었다. 이 흠어진 주검들의 잔해란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은 승리의 징표인가 패배의 낙인인 것일까? 시체로 물러드는 독수리와 까마귀들은 죽음과 악마의 전령(傳令)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오늘날 세계의 강대국 지도자들이 새겨야 할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발휘하

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전쟁 역지력을 발휘하여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해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근래 '아시아 재균형(US Rebalance to Asia)' 정책으로 동북아에서 군사적 경제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혁과 개방이후 급성장하였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등 첨단 무기 무장하며 자국의 영해와 영공 보호를 넘어서 공격적인 군사력을 보유하려 합니다. '반접근거부 전략(A2AD: anti-access area-denial)'을 통해 본토와 연계된 국가와 바다 그리고 공해는 보호되고 공격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지배하고자하거나, 특정 사상과 종교를 강요하거나, 한정된 에너지를 독점하려는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각국의 국경과 영공, 영해 그리고 공해는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아울러 그것은 인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공존번영을 위해 개방되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세계는 하나의 꽃, 하나의 가족이라는 융섭(融攝)의 문화를 인류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의 양 정상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양국 정상은 조속히 만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대결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이곳에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그 어떠한 군사력의 배치와 공격은 시도하지 않을 것을 협약하십시오.

둘째, 양국 정상은 분쟁이 예상되는 제1도련(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라인), 제2도련(오가사와라~팍~사이판~파푸아뉴기니를 잇는 라인) 그리고 대만, 센카쿠(다오위다오)지역과 한반도에서 평화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십시오.

셋째,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부터 동중과 유럽에 이르는 세계 평화를 위한 가칭 '유라시아 평화실�크로드 - 평화벨트 구상'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평화공존의 가치와 인류에 구원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넷째,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는 일본과 러시아의 지도자들과 함께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분단이 당사국들의 패권주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식하고 남북의 국민 앞에 참회하고 진정한 평화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십시오.

다섯째, 중국은 북한의 핵폭탄 개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저지와 개혁과 개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미국은 대북정책을 전환하여 북한과 수교하십시오. 중국의 개혁과 개방은 1972년 중미간 수교 후 촉진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인류의 8억 명이 굶주림의 상태이며, 매년 280만 명으로 추산되는 5세 이하 어린이 사망 원인의 절반 정도가 영양실조라고 합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은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그 비용을 인류의 기아와 질병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 "오직 참는 것만이 싸움을 끝낼 수 있나니 참는 것이야말로 존귀한 법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교훈을 상기해 봅시다.

부디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의 지도자는 대립과 갈등이 아닌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 평화, 복지, 인권, 환경과 인류애를 확산하여서 모든 세계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이 5월 18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제안서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융섭 문화만이 인류의 미래 보장

社說

수명 길고 전력소비 줄이는 'LED' 연등

봉축을 맞아 거리에 오색 연등들이 아름답게 5월의 밤을 수놓고 있다. 이중 서울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들이 있다. LED조명을 활용한 연등들이다. 올해 들어 1만개 이상 대폭 증가했다. 그중엔 햇빛으로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태양광 연등도 절반 이상 차지한다.

서울시는 올해 광화문과 청계천 주변, 인사동, 삼정동 등에 설치된 연등 4천여개를 에너지 효율이 낮은 백열등서 친환경 고효율 LED 전구로 교체했다. 또한 사찰마다 태양광발전기를 통해 불 밝히는 태양광 연등도 5550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조계종과 태고종, 서울시는 함께 지난해 부터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원천하차종이기 사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에 3W LED 전구로 교체가 이뤄지게 됨으로써 전력소비를 70% 줄

이는 성과를 가져왔다.

LED 전구는 벌레가 좋아하는 자외선을 발산치 않아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고, 발열량이 적어 조명 아래 진열된 상품의 신선도를 장시간 지켜준다. 수은을 쓰지 않아 인체에 해가 없으며, CO2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친환경 조명이다. 수명도 백열전구에 비해 최대 25배까지 길다. 전원공급을 위한 수십미터의 전선을 연결하던 기존 연등과 비교해 태양광 연등은 따로 전원 공급을 안해도 되어 설치와 관리가 한결 편하다. 이렇게 경제적인 데다 햇빛으로 충전된 LED조명의 불빛이 더욱더 밝고 선명해 아름답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LED 조명이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나간다면 더욱더 무명의 바다를 헤매는 우리 중생들에게 밝은 빛을 선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끝나지 않은 낙단보 마애불의 아픔

2010년 10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공사 낙단보 구간에서 마애불이 발견됐다. 그것도 공사로 인해 훼손된 채로. 당시 불교계는 공사 반대를 외쳤고, 마애불을 직접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찾아 참배하고 마애불의 보존을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의성군청이 발견하고도 마애불을 방치하고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계종은 2011년 2월 기자회견을 열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보물급으로 평가됐던 낙단보 마애불이 돌연 경북군청의 관리하인 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석연치 않았다.

이후 정비 사업을 통해 주위가 공원으로 조성됐지만 관리 부실로 인한 훼손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했다. 관할 교구본사인 고운사는 임시정당 마애사를 설치하고 주지를 파견했다. 이덕 소임을 맡은 원종 스님은 지역주민과 국민, 불자들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자주 마련해 이곳에 부처님이 계심을 알렸다.

하지만 올해 초 수자원공사는 돌연 입장

을 바꿔 연등과 불단 등 종교시설물을 철거하라고 구두로 통보했다. 원종 스님이 1월 22일 기자회견을 하고 이후 인한 여론의 성토가 이어졌지만 수자원공사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고수 중이다.

불교계가 반발하고 여론이 안좋자 모든 것을 들어올 것처럼 읍소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약속을 여반장(如反掌)처럼 뒤집었다. 정치권과 공무원들을 사회가 불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책의 연속성이 없고, 행정 편의대로 일을 진행한다. 국토부와 문화재청이 당초 약속한 대로 낙단보 마애불을 성역화하고 종단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일이었다.

5월 16일은 한국불교 최대 법석으로 기록될 세계간화선문무차대회가 열린 날이었다. 하지만 이날 고운사는 수자원공사의 종교탄압에 맞서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금도 고운사와 마애사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고, 낙단보 마애불의 아픔은 끝나지 않았다. 사부대중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Modern Buddhism magazine,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Advertisement for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Booklet containing secret methods for the deceased to be reborn in the Pure Land). Includes a calligraphic character '命' and a list of contents.

“영가천도의 중요성” (Importance of Pure Land Rebirth)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List of 11 points explaining the importance of Pure Land rebirth, including the ease of practice and the certainty of rebirth.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List of 12 points explaining the benefits of the 12-item Palsang Tower sutra, including its effectiveness in various situations.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List of 7 points explaining the importance of mountain and water (geomancy) in feng shui, including how to choose a good site.

상당문의 및 책자 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List of 7 points explaining how to perform Pure Land rebirth rituals, including the importance of sincerity and the role of the practitioner.

- List of 7 points explaining the benefits of Pure Land rebirth, including the ease of practice and the certainty of rebirth.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독,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List of 3 points explaining the benefits of Pure Land rebirth, including the ease of practice and the certainty of rebirth.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